

다음 세대를 위한 한 바가지의 물 김리아갤러리, 신진작가 단체전 '마중물 2025' 개최

- 펌프질의 시작점, 신진작가에게 첫 기회를 건네는 '마중물'의 10번째 이야기
- 예술가와 관객, 시장을 잇는 건강한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실험성과 개성을 담은 신진작가 10인의 회화 및 설치 50여 점 전시



신진작가 단체전 '마중물 2025' 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오는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진작가 단체전 '마중물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마중물'은 2014년 첫 회를 시작으로 매해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이어져 온 김리아갤러리의 대표 기획전이다. 다양한 시도를 소개하고 젊은 예술의 흐름을 조명해 온 '마중물'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10회 전시에는 김소영, 김수영, 서도이, 이기찬, 이훈주, 정연재, 제갈선, 조서영, 최형준, 황호동 등 서로 다른 배경과 감각을 지닌 1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들이 선보일 작업은 동시대 예술의 생생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험성과 조형적 완성도를 함께 담아내 기대를 모은다.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에서 유래한다. 이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처럼, 이 전시는 작가에게는 창작의 계기이자 도약의 기회, 관객과 컬렉터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만나는 접점이 되어 왔다.

이 전시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전시 구조를 벗어나, 작가가 주체가 되어 기획에 참여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작품은 전시장 안에서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와 교류 속에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작가의 실험성과 시장성과의 접점을 찾는 장이자, 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마중물 2025'는 지난 10년간의 궤적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다양한 가능성과 젊은 시도가 응축된 이번 전시는, 지금 이 시대의 예술을 가장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로, 젊은 예술가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김소영 (b.1997)

김소영 작가는 조명하는 시선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의 정감을 포착한다. 인물과 사물의 표정, 몸짓, 표면에 집중하며 그 안에 깃든 정신적 깊이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한국의 전통 종이인 장지 위에 아크릴 물감을 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화면 속 여백과 투영성을 강조하고 감정의 밀도를 끌어올린다. 클로즈업 구도를 통해 불필요한 서사를 걷어내고, 침묵 속에서 언어화되는 대상 고유의 감정에 집중하는 회화를 선보인다.

김수영 (b.1989)

김수영 작가는 평면적인 종이를 겹쳐 쌓고 절단·접착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종이가 공간적 형태로 변형되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절단과 아크릴 물감의 사용을 통해 종이 표면을 열어내며, 표면과 공간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작업을 이어간다. 작업의 시작은 일상에서 마주한 감각적인 인상과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되며, 반복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시간성과 축적의 개념을 시각화한다. 관람자의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 입체적 회화는, 평면을 넘어서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Kim Soyeong (b.1997)

Kim Soyeong captures the emotional resonance of everyday objects through an illuminating gaze. Focusing on the expressions, gestures, and surfaces of people and things, she delicately reveals their inner spiritual depth. By layering acrylic paint thinly on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she emphasizes the space and translucency within her compositions, intensifying their emotional density. Through close-up perspectives, she strips away unnecessary narratives, presenting paintings that focus on the inherent emotions of her subjects, articulated in silence.

Kim Suyoung (b.1989)

Kim Suyoung explores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flat paper by layering, cutting, and adhering it through intricate processes. Using precisely designed cuts and acrylic paint, she opens up the paper's surface,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surface and space. Her work begins with sensory impressions and chance discoveries from daily life, visualizing concepts of time and accumulation through repetitive physical actions. Her three-dimensional paintings offer varied visual experiences depending on the viewer's perspective, transcending the limitations of the flat plane.

서도이 (b.1993)

서도이 작가는 자신이 만든 '중성자별로 다시 태어나는' 신화를 통해, 기존 질서와 각본에 저항하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안한다. 자전적인 역할놀이 형식을 빌려, 편견이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삶의 방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온 신화의 기능을 오늘에 되살리며, 그 속에서 우리의 고유함을 탐구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화를 현재적 언어로 다시 쓰는 실험이자, 자기 서사의 창조이기도 하다.

이기찬 (b.1996)

이기찬 작가는 낙서에서 출발한 자유롭고 솔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회화가 지닌 권위와 형식에 질문을 던진다. 과거 노트 위에 남긴 낙서, 스티커, 티켓 등의 조각들은 그의 작업에서 감각적 단서로 작용하며, 가벼운 흔적에 무게감을 부여한다. 화면 위로 경쾌하게 흘러가는 선과 여백은 무아의 순간을 닮아 있으며, 그 안에 개인의 서사와 기억이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이기찬은 이러한 낙서의 감각을 통해 회화의 밀도와 감정의 진폭을 탐구하고, 관람자에게도 각자의 기억과 상상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훈주 (b.2000)

이훈주 작가는 철사를 중심으로 한 조형과 판화 작업을 통해 통제와 우연,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긴장감을 시각화한다. 철사를 자르고, 던지고, 얹히게 하는 반복적 실험을 통해 구조와 흐름 사이의 균형을 감각적으로 탐구하며,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왔다. 무의식 속 이미지들은 판화 작업으로 확장되어, 반복과 미세한 변형 속에서 억압된 감정과 기억이 드러나는 과정을 반영한다. 그의 작업은 개인의 신체적 경험과 내면의 감각을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시도다.

정연재 (b.1992)

정연재 작가는 논리적 요소와 비논리적 요소, 동양과 서양, 한글과 영어, 빛과 어둠 등 상반된 대비의 개념을 기반으로 추상 회화를 구성한다. 대비가 만들어내는 간극의 현상에 주목하며, 감정과 인식의 경계를 탐색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화, 오브제, 가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결과물을 확장시킨다. 작가에게 있어 대비는 단순한 시각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근본적인 표현 언어이다.

제갈선 (b.1984)

제갈선 작가는 텍스트와 신체를 중심으로 페인팅과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제갈선 작가는 구체시, 컷업(cut-up), 글리치(glitch)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털 이미지와 언어를 해체하고, 이를 물리적 공간 속에서 재구성하는 실험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억압된 여성의 신체로부터 도피한 대체 신체로서의 텍스트 개념을 탐구하며, 개인적 글쓰기와 수집된 문장을 통해 감각의 소외와 고통을 시각화한다. 작가에게 텍스트는 타자화된 몸의 감정을 대신 말하는 도구이자, 보다 안전한 고백의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매체다.

Seo Doi (b.1993)

Seo Doi constructs a new myth in which one is “reborn as a neutron star,” proposing alternative narratives that resist conventional orders and scripts. Through a form of autobiographical roleplay, she builds a world free from prejudice and rules—reimagining identity and existence within it. Reviving the function of myth as a force that has long shaped human life and behavior, her practice explores the uniqueness of being in today’s context. In doing so, she rewrites myth in a contemporary language and creates a new form of personal narrative.

Lee Gichan (b.1996)

Lee Gichan explores the emotional depth and visual density of painting while challenging its conventional authority and form. Fragmentary elements—such as stickers, scribbles, and ticket stubs—once left in notebooks, reappear as sensory cues in his work, turning ephemeral traces into something weighty. His dynamic lines and expressive spaces evoke moments of egolessness, naturally blending with personal memories and stories. Lee’s paintings invite viewers to recall their own memories and engage in free association.

Lee Hun Ju (b.2000)

Lee Hun Ju visualizes the tension between control and chance,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through sculptural and print-based practices centered around wire. Through repetitive acts—cutting, throwing, entangling—he sensorially explores the balance between structure and flow, establishing a unique visual language. His unconscious imagery expands into printmaking, where subtle variations and repetition reveal repressed emotions and memories. His work ultimately seeks to give form to the invisible architecture of the mind, grounded in bodily experience and inner sensation.

Jung Yeon Jae (b.1992)

Jung Yeon Jae constructs abstract paintings based on the interplay of opposing concepts: logic and illogic, East and West, Korean and English, light and darkness. Focusing on the phenomena that arise in the gaps between these contrasts, Jung investigates the boundaries of perception and emotion. This exploration extends into various forms, including paintings, objects, and furniture. For the artist, contrast is not merely a visual device but a fundamental expressive language that stimulates reason and imagination alike.

Jaegal Sun (b.1984)

Jaegal Sun’s practice revolves around text and the body, encompassing painting and installation. Drawing on concepts like concrete poetry, cut-up technique, and digital glitch, she deconstructs language and digital images to reconstruct them in physical space. Recently, she has explored the notion of text as an alternative body—an escape from the repressed female body—using personal writings and collected sentences to visualize alienation and pain. For Jaegal, text functions as a surrogate

조서영 (b.1999)

조서영 작가는 사라져가는 일상의 순간들을 회화로 포착하며, 사소하지만 소중한 장면과 감정을 기억하려 한다. 클로즈업된 시선과 직관적인 붓질, 물감의 우연한 번짐을 통해 현실과 기억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 시각화한다. 햇살에 비친 이파리, 손끝의 감각 같은 구체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들은 감상자에게 체온 있는 회화적 경험을 제안한다. 그녀의 작업은 지나간 시간과 감각을 다시 불러오는 일상의 기록이자, 삶의 정서적 풍경을 담은 조용한 반사체로 기능한다.

최형준 (b.1997)

최형준 작가는 사생과 설치 작업을 기반으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조형적 변화를 기록하고 표현한다. 그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기후의 변화나 동적인 요소들을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아 풍경이 지닌 생동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며, 특히 야외에 장기간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먹과 종이 등의 전통 매체를 사용하여 시간과 환경의 흔적을 담아내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작가는 자연과 직접 호흡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의 본질과 그 안에 축적된 시간의 결을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황호동 (b.1996)

황호동 작가는 시간이 흐르며 남는 잔상과 불명확한 이미지를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한다. 그는 비형식적인 형태를 통해 과거와 현재 속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면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정형화된 문자가 아닌, 투박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담아내며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며 순간의 감각을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for the emotional voice of the other body and a safer space for confession.

Jo Seoyoung (b.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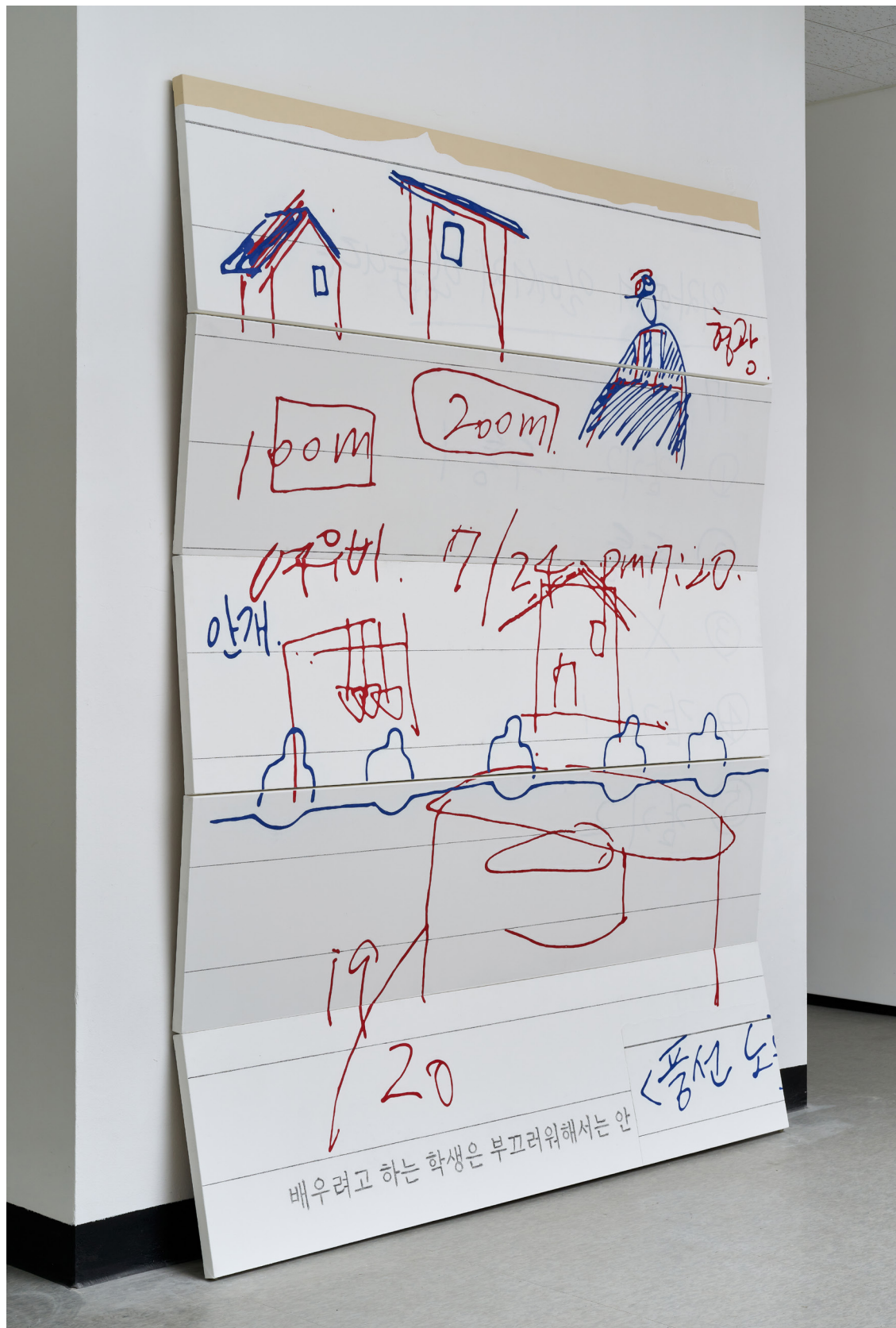
Jo Seoyoung captures fleeting everyday moments through painting, seeking to preserve the subtle yet cherished emotions embedded in them. Using close-up perspectives, intuitive brushwork, and the accidental spread of paint, she visualizes the hazy boundary between memory and reality. Her warm, tangible images—sunlit leaves, the sensation at one's fingertips—offer a sensorial, emotionally resonant experience. Her work becomes a quiet reflector of emotional landscapes, reviving sensations and memories of time passed.

Choi Hyeongjun (b.1997)

Choi Hyeongjun records and expresses the formative changes in nature through observational drawing and site-specific installations. His work captures the dynamic elements of landscape—such as weather conditions or movement—by directly engaging with the outdoors. Utilizing traditional materials like ink and paper atop long-term outdoor structures, Choi documents the traces left by time and environment. Breathing with nature, his practice focuses on grasping the essence of ever-changing landscapes and the layers of time embedded within them.

Hwang Ho Dong (b.1996)

Hwang Ho Dong transfers afterimages and ambiguous forms left by the passage of time onto canvas. Through informal shapes, he reflects on past and present versions of the self while attempting to break free from inner anxiety. Rather than attaching fixed meanings, his paintings—where roughness and subtlety coexist—record what naturally appears as time flows. His work captures ephemeral sensations and focuses on observing fleeting impressions as they arise.



Lee Gichan
낙서_형광, 안개, 풍선놀이 (2024)

acrylic on canvas
225×176cm



Jo Seoyoung
그 여름빛 2 *Light of the Summer 2* (2024)

oil on canvas
112×162cm





Kim Soyeong
Green Beans (2024)

acrylic on Jangji
45.5x53cm

